

장미 꽃다발 기도 초

황누리

목주 기도 성월인 10월을 맞아 우리 아이들과 다 함께 목주기도를 하며,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교리실에서 차분하게 목주기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쁜 기도 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



준비물

양초, 크레파스(빨간색, 분홍색, 초록색, 연두색), 종이컵, 가위, 조각칼, 붓, 유성펜, 냄비, 스테인리스 그릇, 휴대용 가스레인지, 두꺼운 실, 장미꽃과 잎사귀 도안(디다케 홈페이지 <http://didache.eduseoul.or.kr>→자료방→디다케 자료방) 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)



① 시중에서 파는 양초와 크레파스를 함께 중탕하여 녹입니다.(종이컵만한 크기의 양초 하나 당 새끼손톱 크기의 크레파스 조각을 넣으면 됩니다.)



② 빨간색, 분홍색 크레파스와 함께 녹인 양초를 종이컵 3분의 1정도까지 따릅니다. 여기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굵은 실을 넣어 심지를 만들어 줍니다.



③ 초록색과 연두색 크레파스를 넣고 녹인 양초는 사진처럼 살짝 접은 종이컵에 따릅니다. 마찬가지로 3분의 1정도까지 양초를 차게 하고, 굵은 실을 넣어 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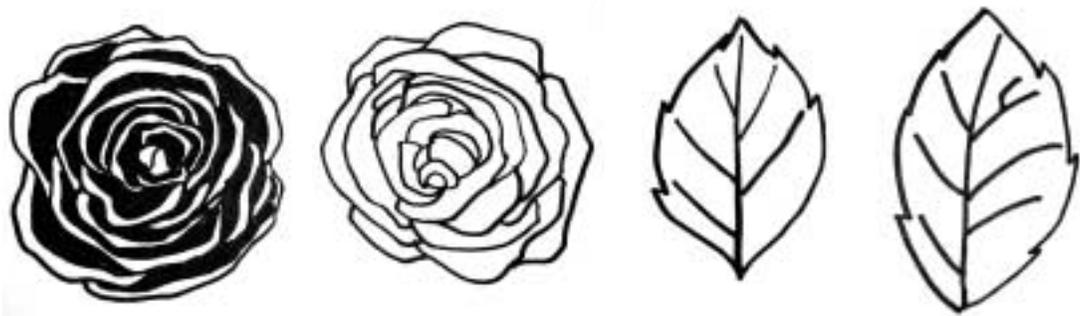
④ 충분히 시간을 두어 굳게 한 후, 가위로 잘라 종이컵을 벗겨 냅니다.



⑤ 조각을 하기 위한 기본 양초가 완성되었습니다.

선생님들께

여기까지의 작업은 불을 사용하여야 하고 양초를 굳게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리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미리 작업하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

⑥ 디다케 홈페이지에서 장미꽃과 잎사귀 도안을 내려받습니다.



⑦ 도안을 참고하여 빨간색과 분홍색 양초에 장미꽃을 조각합니다. 조각하기 전 유성펜을 이용해 양초에 밀그림 그려 놓는다면, 더욱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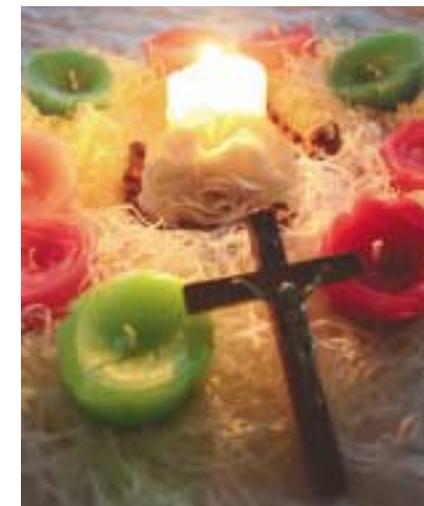
⑧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초록색과 연두색 양초에 잎사귀를 조각합니다.



⑨ 조각을 할 때는 가루가 많이 생기니 붓으로 털어 주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.



⑩ 완성된 장미꽃과 잎사귀 초에 불을 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.



⑪ 묵주 기도 성월을 맞아 예쁘게 포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도 좋습니다.

황누리_엘리사벳
단국대학교 서양화과에서 미술을 전 으며, 서울대교구 묵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4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.